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8(土)	29(日)
	
구름 조금 25 / 33℃	구름 많음 24 / 31℃

- News**
- 비자없이 미국 간다 ②
  - 폭염 속 서점가 피서 ③
  - 오늘 밤 韓-日 축구 ⑧

**Jeollado**

- 그 사람-이대순 前장관 ⑦



- Entertainment**
- '드라마 피서' 해볼래요 ⑧
  - 심형래 '디워' 내달 개봉 ⑨

- Books**
- 휴가, 책과 함께 떠나요 ⑩
  - 천재의 광기는 필연인가 ⑪

- Wellbeing**
- 식품 탐구-알로에 ⑬

유형직업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dd.ac.kr

전남과학대  
http://www.jnsci.ac.kr

## 白특사 아프간에 '맞교환' 설득

### 극적 해결·장기화 중대 고비...협상시한 또 연장

#### 백특사 시신 서울 운구 준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백종천 대통령 특사가 27일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인질석방조건에 대해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탈레반이 재차 협상시한을 연장해 인질 피랍사태는 극적 해결이나 장기화냐의 중대고비에 들어섰다.

백 특사의 활동은 결국 탈레반이 인질 맞교환 조건으로 내건 탈레반 수감자 석방에 대해 아프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특사인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아프간 수도 카불에 도착, 아프간 외교부 장관·내무부 장관·국제지안유지군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 특사는 당초 27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이 무슬림 휴일인 금요일이어서 28일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 파견 자

체가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이며, 최고 수준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 무장세력은 자신들이 설정한 협상 시한인 27일 오후 4시30분이 넘은 후 협상시한을 또다시 28일 새벽 4시30분(한국 시간)으로 연장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인질들의 몸값 일부가 전달됐다고 보도, 몸값 지불을 통한 사태해결노력에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7일 오후 한국인들이 억류돼 있는 가즈니주의 한 탈레반 지휘관이 한국인 인질 22명이 모두 무사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인해 당초 내주로 예정돼 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아프가니스탄 상황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랍사태 진전 상황을 쫓길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카불의 바그람 기지에 안치된 배형규씨 시신을 최대한 빨리 서울로 운구할 계획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붙잡혀 있는 22명의 한국인 인질 가운데 남성 인질 1명이 아파 치료를 받았다고 가즈니 주(州)의 탈레반 지도자가 지난 26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인질들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현재의 억류장소에서 현지 주민의

집으로 옮겨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아프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역 주민은 '탈레반이 신뢰하는 주민'이지만 탈레반 무장요원은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인질 감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연남뉴스

#### 탈레반 "8명 맞교환 뒤 추가 8명 명단 줄 것"

탈레반과 한국인 인질 석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무자디디 아프가니스탄 정부 협상 단장이 긍정적인 협상 전망을 밝혔다. 아프간 이슬라미 프레스(AIP)가 26일 보도했다.

반면 탈레반 대변인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AIP와 전화 통화에서 "아프간 정부는 당초 우리와 수감자 교환에 동의했지만, 우리가 석방 요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자 갑자기 변명을 늘어 놓으며 실행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날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설명했다.

아마디는 이어 "그들(아프간 정부)이 먼저 8명의 탈레반 수감자를 풀어줘야만 상호간에 신뢰가 생겨날 것이며, 그런 이후에 추가로 8명의 석방대상 명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프간과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남뉴스



이슬람 신도들 '인질 석방' 기도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와 무슬림들은 27일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중앙성전에서 열린 금요합동 예배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억류 중 희생된 배형규 목사를 애도하고 한국인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2차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요합동 예배를 울리고 있는 이슬람 신도들. /연남뉴스

## 폭염

순천 36.4도...광주·전남 폭염경보  
3일째 열대야...전력사용량 최대

광주에 3일째 열대야(熱帶夜·하루 최저 기온 25도 이상)가 계속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猛威)를 떨치고 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26일 광주와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광안·순천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27일 새벽 5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대체됐다.

전남 대부분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고 열지수가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낮 기온은 순천 36.4도(열지수 37도)를 최고로 ▲구례 34.8도(열지수 37도) ▲나주 33.5도(열지수 37도) ▲광주 32.5도(열지수 37도)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0~35도까지 오르고,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폭염비상'이 걸렸다.

한전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24일 330만kW ▲25일 347만kW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6일 밤 9시에는 364만kW까지 올라가 올 여름철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최고치 327만kW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한국전력 전남지사장은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야간 근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비상대기 근무 체제가 들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

#### 코스피 1900 붕괴 80.32P 폭락...낙폭 사상 두번째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 공세로 이틀째 급락하며 지수 기준으로 사상 두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0.32포인트(4.09%) 급락한 1,883.2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5.22포인트(3.09%) 내린 792.06으로 마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신용경색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날 뉴욕 증시가 2% 넘게 급락하자 외국인인 사상 최대 수준의 매도 공세를 퍼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로 출발했으며 오후 들어 더욱 낙폭을 키웠던 때 100.15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듯하다가 장 막판 낙폭을 다소 줄였다. /정필수기자 bungy@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레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더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과할 활성산소는 피부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욱 거칠은 울 여부,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B군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도 함께 하는 아로나민 씨플레스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레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피부가 좋아야 일하러, 살려야...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아로나민 씨플레스